

# 이상기후·유가 상승 장기화 광주·전남 수산물 값 '들썩'

## aT지역본부 '농수산물 가격정보'

굴 1kg 1만2천200원...2주전비 8% ↑

갈치·전멸치 등 주요 품목 상승

면세유 급등에 수익 악화 불가피

이상기후와 국제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는 등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역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농수산물 가격정보지 2026호'에 따르면 전남 기준 양동시장의 주요 수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굴은 1kg 기준 1만2천200원으로 2주 전 1만1천300원보다 약 8% 올랐고, 갈치 한 마리는 1만8천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2.3% 상승했다. 전멸치

(중멸) 100g 역시 1천880원으로 0.5% 오르는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이상기후로 인한 수온 변화와 어장 이동,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용 연료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해수 온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종별 어획 시기와 생산량이 불안정해졌고 이에 따라 조업 횟수 자체를 줄이는 어선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료비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실제 대형 어선에 사용되는 면세유 경우 가격은 지난 3월1일 1천104.5원에서 4월 20일 1천491.6원으로 약 한 달 사이 35% 급등했다. 조업에 필수적인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체감 위기가 더욱 크다.

목포에서 조업을 하는 최모(67) 씨는 "잡히는 양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유류비는 계속 올라

부담이 크다"며 "주변에는 조업을 해도 손해라며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와 수협중앙회는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협은 자체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유류비 보조금 지원을 추진 중이며 해당 보조금은 다음 달 총회를 거쳐 이달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협은 추경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가 연동 보조금 규모가 52억원으로 확정된 만큼, 이달 사용량부터 어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영동 전남수협본부장은 "중요회 지원 100억원 가운데 지역 배분에 관한 규모는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추경안과 전남도의 200억원 규모 에너지 절감 사업도 조기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산인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최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빛가람홀에서 '창립 제3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전KDN 제공>

## 한전KDN, 글로벌 에너지ICT 중심 도약 다짐

창립 34주년 기념식 개최

전력망 통합운영 등 5대 테마 추진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21일 "전남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빛가람홀에서 '창립 제3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빛가람홀을 찾은 본사 직원과 사내 방송망 실시간 중계를 통한 전국 사업소 직원 등 3천여명이 참여해 '하나된 우리, 에너지 대전환의 지평을 여는 한전KDN'이라는 메시지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한전KDN 창립 34주년 기념식은 식전 행사로

꾸며진 퓨전국악 공연팀 '꽃가람'의 활기찬 무대로 문을 열고 공로상 및 모범직원상 표창, 'KDN 품질명장' 인증패 수여식 진행으로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기념사에서 "국가 전력망의 디지털화를 이끌고 에너지ICT 산업을 선도해 온 지난 노력에 대해 전제 임직원과 노동조합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지난해 선정한 2025 비전의 달성을 위해 현재의 강점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GREAT First MOVER'가 돼 '디지털 혁신,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ICT의 중심'이 되자"고 역설했다.

1992년 한국전력공사의 정보통신(ICT) 업무

강화를 위해 설립된 한전KDN은 전력 분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그리드, 전력IT 서비스 등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했으며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와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한전KDN은 이번 제34주년 창립 기념식을 통해 '디지털 혁신,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ICT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비전의 목표를 다시금 확인하며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생태계 선도를 목표로 ▲전력망 통합운영 플랫폼-Grid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ICT Renewable ▲클라우드 에너지 플랫폼 신시장 창출 Energy Platform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기반 AI 혁신 선도 AI ▲에너지 패키지 Total로 집약된 5대 핵심 사업테마(GREAT)와 14대 핵심사업을 추진하며 미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임재만 기자

## 실적 발표 대형주 풍부한 유동성 수혜

### 주식 증시 전망



김경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V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4월15일~4월21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6.2%, 코스닥은 4.7%가량 상승했다. 해당 기간 코스피는 개인이 2조원 순매도한 것을 기관이 받아갔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소액씩 매도한 것을 개인이 가져갔다.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 반등을 이끌었는데, 뚜렷한 수급 방향성 없이도 외국계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과 함께 상승했다.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지속 경신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어 어느새 코스피 지수 6,300으로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지점까지 진입해버렸다. 그러나 이란 사태와 같은 조정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이제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락하면 더 매수하겠다는 마인드로 가격대별 비중을 정해두고 분할 매수해나가는 전략이 낫다.

레버는 휴전 합의에 따라 이란의 상업용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이 나오며 반등하던 글로벌 증시는 지난 주말 사이 미국이 이란 선박을 봉쇄하자 이란 역시 재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며 2차 휴전 협상 마감 시한(21일)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는 더 이상 새로운 변수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가격에 반영돼 온 이벤트'에 가까운 상황으로, 이로 인한 하락은 오히려 주식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결국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여파를 얼마나 잘 극복하고 빅테크들의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지와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시선이 옮겨갈 것이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단기 변동성은 일부 수용하겠으나 실적 모멘텀을 반영하며 전고점 경신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22일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HD현대중공업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풍부한 시장 유동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 보이며, 하반기 코스피 7,000 포인트를 도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 전쟁, 질병 등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한 위기가 지난 후에는 항상 증시의 급반등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주식시장 반등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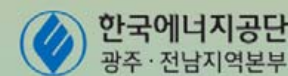
최근 글로벌 이슈 중 하나는 클라우드 AI로 유명한 엔트로픽의 AI 최신 모델 미토스다. 엔트로픽 내부 테스트 결과 너무 강력해 나머지 일반인에게 공개 불가로 결정됐고,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인간 최고 수준의 전문가조차 넘어서는 능력을 보이며 수련된 보안 연구원이 수주, 수개월 투자해도 찾기 어려운 소프트웨어 결함을 미토스는 자율적으로, 대규모로 찾아냈다고 한다.

위 결함들은 주요 운영체제(Windows, MAC, Linux 등)와 웹브라우저에 존재하는데 이중 99%는 아직 패치되지 않았다고 하며 미토스 발표 당일 미국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월가 최고 경영자들을 긴급 소집해 사이버 보안 위협을 논의하였을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미토스'는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AI 발전이 정제기에 접어들었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미토스는 그 예측을 정면으로 뒤집었고 다른 AI 기업들도 비슷한 능력을 가진 모델을 곧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 국방부와 백악관이 미토스 대응 팀과 활용방안을 즉각 추진한 만큼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국가 안보와 글로벌 인프라에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격상됐다고 봐야겠다. 이는 AI의 능력이 국가 안보·금융 시스템과 직결되는 시대로 국가적인 AI 투자가 더더욱 필수적일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에 양자암호와 보안 관련 주들이 단기 급등세를 보였지만 실제 수혜는 또다시 국내 유일 글로벌 AI 핵심 밸류체인 메모리 반도체가 될 것이다. 여러모로 수혜가 끊이지 않는 삼성과 하이닉스다.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인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하늘아래 단 하나의 터

#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법당형 봉안당 시스템 해원정사 VIP추모원은**

- 1 편리한 접근성  
광주광역시 중 구에 위치하며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2 명품안치단  
극락전 VIP안치단은 고인이 유품을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더 넓고 화려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 3 극락전VIP추모관  
내부에서 골고루 자연재광이 되도록 설계 하였고, 환온-환습시스템으로 고인을 쾌적하게 모십니다.
- 4 해원정사 추모원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  
- 매년 가을에 추모산사용익회 개최  
- 해원정사 추모원에 모시는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스님께서 매일 기도를 해드립니다.  
- 매일 음력18일 지장재일과 백중, 구정, 추석 등 매년 15회 합동제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 추모관은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보안은 5중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프리미엄 봉안당 지금 준비가 가장 현명  
10년후면 더 비싸집니다. 봉안당은 부동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미리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세요!

**VIP 가격표 (관리비 별도)**

개인 단	400백만원 ~
부부 단	800백만원 ~ 2,400백만원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광주광역시 동구 분산길 100 www.haewonjungsas.com 대표전화 | 062-234-4576